

고요한 적막...정진...죽비소리

신행현장

유니텔 불교동호회 참선수행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집밖을 나오기 싫은 한겨울인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 고등학교 학생, 직장인, 통역 프리랜서, 자영업자 20여명이 서울 강남포교원 수선실(修禪室)에 모였다.

이들은 바로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이사 오기석(오기석) 참선방 회원을, 10대 학생에서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줄맞추듯 가지런히 놓인 좌복 위에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참선방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이버 신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선에 관심있는 5~6명의 사람들이 모여 98년 11월 문을 열었다. 지금은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문답을 통한 이론공부와 매주 목요일 저녁 실수를 통해 참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99년 한해동안 입세선원장 종성스님으로부터 참선에 대한 이론과 실수를 배워 지금은 스님이 내려준 화두를 들고 자신의 진면목을 관(觀)하는 '예비 수좌'들이다.

또한 서울, 해곡 스님 등 큰스님 초청법회와 염불, 봉사활동도 펼치며 이론상뿐만 아니라 실제 참선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딱, 딱" 고요한 적막을 깨는 죽비소리와 함께 50분간 참선삼매에 빠져 있던 회원들은 다리를 펴며 몸을 추스린 뒤 원을 그리며 법당을 도는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한다. 다시 울리는 죽비소리에 회원들은 자리에 앉으며 50분간의 정진에 들어간다. 오기석(48·LVMH코리아 근무) 대표이사님은 오늘 처음 참석하신 고교졸업반 원수연(18·서울 개봉동)군과 초심자인 문종식(35·리에드커뮤니케이션 운영)씨를 옆방으로 데리

강남포교원 수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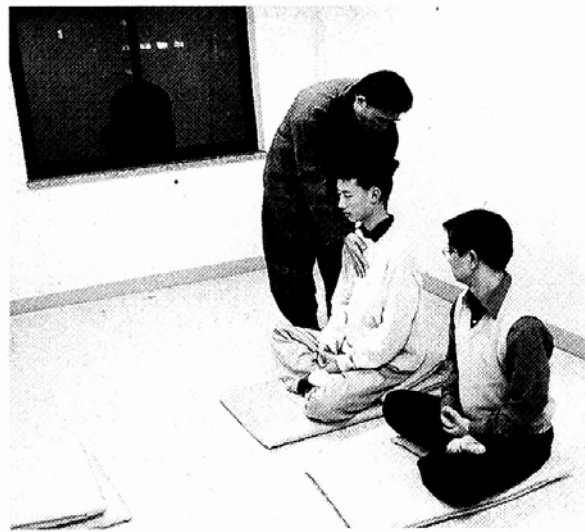
10대~50대 200여명

'참나 찾기' 치열한 싸움

고 참선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다.

"참선은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자신의 호흡은 죽지 않는 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관찰하면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설명듣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인다. 수연군은 "참선에 들면 잡다한 생각이 꼬리를 뚫니다. 어떻게



◇고교졸업반 원수연과 자영업자 문종식씨에게 참선의 기본자세를 가르쳐 주고있는 오기석 유불동 대표이사.

해야합니까" 고민을 털어놓았다.

"번뇌방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가면 안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관(觀)하세요"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참선을 마친다는 죽비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시간여 동안의 실수에 이은 차담시간. 박은영(31·통역 프리랜서) 참선방 총무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오늘은 화두가 잘 안잡혀" 깃다거"를 화두로 정진하는 오시환(47·공연재 근무)씨가 말을 꺼내자 수석

관을 하고 있는 구자운씨(33·삼성반도체 근무)도 "숨을 놓칠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회원들은 수행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 수행 도반으로서 서로를 고무시키고자 하는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바빠 돌아가는 일상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고 마음을 잡기란 쉽지 않은 일. 유니텔 불동 부처님나라 참선방 회원들은 비록 온라인상에서 담담하지만 가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체온을 나누며 수행정진에의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새해 첫날의 초발심 "날마다 좋은날 만들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력설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설을 앞두고 국민들 대부분이 설을 지내기 위해 부모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떠납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고향에서 부모형제와 조우하고 죽마고우를 만나 정다운 덕담도 나누겠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첫 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지내는 설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자들은 집에서 음식 장만하는 라스트레스를 받기 일쑤고,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본분을 망각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설을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연휴로만 생각하고 새해 첫날부터 해외로 나가거나 스키장 등을 찾아가 흥청



지형스님 소림정사 주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않도록 설날부터라도 '초발심(初發心)'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초발심은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초발심이 보리(깨달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기가 약한 범부 중생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나약해져 초발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들은 초발심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 가다가 방일하거나 나태해질 때면 대웅암을 발하여 참나를 찾고 늘 처음 가졌던 마음, 즉 초발심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마음을 바로 새해 첫날에 세우길 바라는 겁니다.

육조 혜능 대사는 '부처님의 진리가 세상이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세간과 함께 하는 것이고 중생계를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그것이 곧 성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혜로운 참불자의 길입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첫 설날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유백화(春有百花) 주유월(秋有月) 봄에는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둥근달이로다.'

하유양풍(夏有涼風) 동유설(冬有雪)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흰눈이 아름답도다.'

사시사철 온 우주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한한 가피를 내려주고 있으므로 나를 우주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십시오.

낮은 땅 사는 뱀처럼 자신 낮추고 겸허하게

망청 놓고 즐기며 방일하게 보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설명절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며 휴식을 취하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날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조용히 가족과 함께 어드름을 찾아 밭고 새배를 울리고 나서 가까운 사자를 찾아가 각자의 1년 서원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출발이라고 마음만 들떠서 원대하고 높은 서원을 세우다보면 그저 계획을 짜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높은 곳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욕심없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서원을 세워 보십시오.

낮은 땅에 사는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오히려 성숙해 갑니다. 우리도 뱀처럼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조고하학(照顧脚下)'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수행과 전법에 게으른 불자들이 많습니다. 새해부터는

생활속의 불교

'장미' 라는 이름엔 향기가 없다

비록 자신의 견해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된다. 비록 자신이 믿는 종교가 명징하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보물 같다' '이것만이 참이다' 하여 애지중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가르침이 땀땀 감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종교를 존중한 나머지 다른 이의 종교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땀땀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땀땀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려 하기보다 다른 이의 종교를 '우상 숭배' '미신이다' 하며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가르침의 노예가 된 경우이다.

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했던 인도의 아쇼카 왕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바위에 새겨놓도록 했다.

"...나의 종교를 존중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 종교를 찬양하기 위해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현신하려던 제 종교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 아쇼카 왕의 경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찬양과 현신이 지나쳐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종교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름으로서의 불교·기독교...를 두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며 다투는 것은, 예컨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과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장미가 좋다, 국화가 좋다고 다투는 것과 진배없다.

국화도 꽃이고 장미도 꽃이다. 아름다움과 향기는 꽃에 있는 것이지 국화라는 이름, 장미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름엔 진리가 없다. 진리엔 이름이 없다. 진리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다. 고로 '불교'라 함도 '기독교'라 함도 다 이름이다.

스스로 참된 종교인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龍眼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간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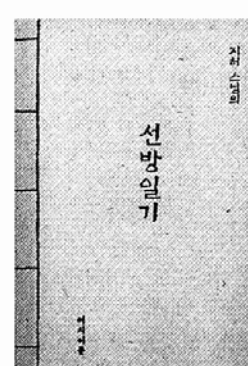
"결단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때로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부 디자라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득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가탈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절과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XX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계철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월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새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영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 401 허공의 딸꼭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 B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중서 지음 / B6 변형 182쪽 / 값 4,500원